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 익 중

(덕성여자대학교)*

김 혜 란

(서울대학교)

홍 순 혜

(서울여자대학교)

박 은 미

(서울장신대학교)

허 남 순

(한림대학교)

오 정 수

(충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동일한 빈곤상황에서도 아동들이 제공받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상이하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다른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결연사업 대상아동을 모집단으로 하는 904명의 빈곤아동이다. 그 중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8.2%, 조부모 대리양육가정 아동이 22.7%, 친인척위탁양육가정 아동이 8.2%, 일반위탁가정 아동이 1.8%, 기타 일반빈곤가정 아동이 59.1%이었다.

연구의 중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하위척도군 전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하위척도군 중에서 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전체적 차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종속변수는 비행이었다. 둘

* 주저자, 교신저자

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의 낮은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부모의 지도감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상황에서는 비행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비행 수준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비행 감소 또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아동 중 특히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빈곤, 아동, 사회복지서비스, 심리사회적 적응, 부모의 지도감독, 비행

1. 서론

아동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대물림 되는 특징을 보이는 빈곤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2002년 현재 전체 아동 1,157만 명 중 약 10%인 11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9.8%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류연규·최현수, 2003).

빈곤은 아동을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 발달산물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지만, 모든 빈곤아동들이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빈곤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Chung, 2004).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응 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있고,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빈곤아동이 상이한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에 관해서는 다양한 역동이 존재하고 있음이 몇몇 연구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다. 빈곤자체의 객관적 상황보다는 아동이 자신의 빈곤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순형·신양재·김영주, 1991)도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함께 작용하는바, 위험요인이 많을수록 적응유연성(resilience)이 떨어지는 반면, 보호요인이 많을수록 적응유연성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박현선, 1998)도 있다. 심지어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단선적인 비교에서조차 빈곤아동이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일반아동과 비교한 연구(오승환, 2000a; 이상균·박현선, 2000)에서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적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빈곤아동이 보다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외국의 선행 연구결과나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분석결과와 달리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부스리기사랑나눔회, 2003)는 빈곤아동이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빈곤아동을 실천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실천가들은 이러한 결과를 더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보고는 모순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동일한 빈곤상황에서도 개개인의 적응상의 다양한 스펙

트럼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아동 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적응수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최근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연구자들은 특히 빈곤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뛰어난 적응능력을 보이는 적응유연적인 아동을 통해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속성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적 속성이나 민주적인 가정환경, 지지적인 학교 환경 등이 주된 보호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선, 1999). 또한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적응유연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오승환, 2000a).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존재이다. 아동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조기 아동프로그램(Gomby et. al., 1995)이나 방과후 프로그램(Jessor, 1992; Posner and Vandell, 1994, 1999) 등은 빈곤아동의 위험요인을 중재하는 보호요인이 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 가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일 뿐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이 갖는 보호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실천가들은 아동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당연히 주어지는 상수(常數)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에 대한 분석상의 고려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일한 빈곤상황에서도 제공받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며, 대다수가 결연사업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지급받으며 관리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후원금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동일한 빈곤 상황이라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아동들은 부모의 갑작스런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소득보장이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아동과는 적응수준이나 문제의 양상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은 빈곤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단선적 비교뿐만 아니라 빈곤아동만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관심과 집중적인 지원이 빈곤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묵묵히 실천현장을 지켜온 실천가들의 노고를 보상하는 동시에 이에 근거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정당화되고,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빈곤의 세대 간 전이를 단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적 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과 다양한 종교시설, 학교 등에서 빈곤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사회복지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빈곤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실제 현실에서는 어느 한두 개의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보다 엄격하게 통제된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동일한 빈곤상황에서도 제공받는 사회복지서비

스의 양과 질은 상이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다른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1) 빈곤이 아동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그 영향이 매우 장기적이며 광범위하다. 빈곤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과업의 성취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아동이 성장할수록 누적된 장애의 영향은 더욱 부정적이며,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모세대의 빈곤은 자식세대로 대물림되어 빈곤의 만성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빈곤층이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탈출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대일, 2004).

빈곤이 아동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과 같은 신체 발달의 문제에서부터 인지 발달의 문제, 학교 적응의 문제, 정서 문제, 행동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hung, 2004).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빈곤은 아동의 자신감과 절망감, 우울, 행동 문제, 또래 갈등, 아동 학대와 방임 등에 영향을 주며(McLoyd and Wilson, 1992), 학업부진, 학교중퇴 등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rner, 1995). 또한 약물 사용, 비행, 폭력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 발달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Loeber, 1990).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개 가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설명한 가족매개모형(family mediation model)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다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의 가족관계와 자녀의 사회정서적, 학업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nger et al., 1992; Elder, Van Nguyen and Caspi, 1985; Lempers, Clark-Lempers and Simons, 1989; McLoyd, 1990). 빈곤가족의 부모들은 대개 생계를 위해 장시간 혹은 불규칙한 노동을 하게 되므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하지 않으며, 언어적인 훈계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수준도 낮다(Chung et al., 2002; McLeod and Shanahan, 1993). 아동과 부모의 단절된 정서적 유대는 우울과 자아존중감 등 아동의 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빈곤부모의 부적절한 지도감독은 자녀의 비행, 폭력 등의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Cicchetti and Toth, 1998).

외국 연구들에 비해 빈곤아동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아직까지 빈곤아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외국 문헌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정확한 기초적 역학조사와 장기(longitudinal)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에 독특한 가족구조와 문화를 반영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빈곤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상실과 소득 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구인회(2003)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은 청소년의 학력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빈곤 부모들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중류층 부모들과 비교한 연구(이영·신은주·나종혜, 1995)에서는 빈곤 부모들은 중류층 부모들에 비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기능발달을 촉진시키는 질 높은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연구(이원숙·김성이, 1993)에서는 결손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망의 전반적인 규모가 작았으며, 망구성원과의 관계에서도 친밀도, 접촉빈도, 관계지속기간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격서비스 영역에서는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더 많은 지지망을 가지고 있었고, 친척과 이웃 영역에서도 약간 더 많은 지지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의 빈곤아동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빈곤아동의 발달 혹은 심리사회적 적응이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구조인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해 연구한 오승환(2000a)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은 우울이나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의 정서적 측면에서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없었으며, 비행에서도 역시 차이가 없었고, 공격성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의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작았지만, 관계망의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양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 성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나은 적응을 보이는 결과에 대해 오승환은 친척, 이웃 등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점과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결연후원사업, 후견 인제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룹홈 등의 다양한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2)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문헌을 정리한 연구(Smokowski, 1998)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적응의 세부 영역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가족적, 사회환경적 요인들로 구분된다. Smokowski가 정리한 적응의 세부 영역들 가운데 본 연구와 연관되는 영역인 우울, 비행, 알코올과 약물남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아래와 같다.

먼저, 빈곤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아동의 학업수행 부진, 신경생물학적 취약성, 가족의 낮은 응집력, 적대적 혹은 비판적인 가족환경, 부모의 이혼, 부모의 우울, 이웃의 폭력 등을 포함한다. 반면, 우울의 보호요인은 남자 아동, 가족의 지지, 가족이외의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빈곤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아동 초기의 공격 행동, 비행 또래집단과의 연관성, 가족 혹은 부부갈등, 부모의 부적절한 역할모델, 부모의 부적절한 지도감독, 반사회적인 지역사회 규범, 만성적 지역사회 폭력 등을 포함한다. 반면, 비행의 보호요인은 여자 아동, 성실한 학교생활, 또래 집단의 긍정적 지지, 지지적인 가족 분위기, 부 혹은 모에 대한 강한 애착, 효과적인 부모의 지도감독,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한다. 빈곤아동의 알코올과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알코올남용의 가족사(family history), 충동조절 부족, 학교 실패, 약물사용 또래집단과의 연관성, 가족갈등 등,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부족, 가족 내 의사소통의 부족, 약물에의 접근용이성 혹은 허용적 규범 등을 포함한다. 반면, 알코올과 약물남용의 보호요인은 문제해결기술, 부모와의 애착, 가족이외의 사회적 지지, 긍정적인 사회 규범과 가치 등을 포함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 연구와 유사한 이론적 틀을 적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승환(2000b)은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가족구조, 경제적 요인,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동거 여부, 정보적 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정보적 지지가 많을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보호부담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에 비해 오히려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반하여, 오승환은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특히 부모와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에게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결연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 이상균과 박현선(2000)은 조숙한 아이들이 미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성인아이 증후군(adult child syndrome)'을 언급하면서, 소년소녀가정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성인역 부담은 우울성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에게 성인역할모델을 제공하고 발달에 적절한 의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서적 결연 즉,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애착과의 관계를 연구한 정선옥(2002)에 따르면, 시설보호 청소년의 친부모, 보육사, 또래와의 애착은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자녀 유대관계, 부모에 대한 애착은 비행,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선옥은 시설보호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자녀관계, 부모와의 애착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을 제안하였다.

3)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빈곤이 아동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빈곤아동의 발달과 적응이 보호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hung, 2004). 특히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빈곤아동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국내외 연구들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essor, 1992). 즉, 방과후 프로그램은 빈곤아동의 위험요인들을 중재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Posner와 Vandell(1999)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정서적으로 더욱 잘 적응하고 또래관계도 좋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구조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학업에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래나 성인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TV를 시청하거나 지도감독 없이 바깥에서 노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osner and Vandell, 1994). 하지만, 모든 방과후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방과후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업 지원,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스포츠 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and Fox, 2004). 또한, 프로그램 내에 보호적인 성인이 존재하고, 비행 행동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부정적 또래의 영향이 없을 때 긍정적 학습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Jessor, 1992), 아동-교사의 비율이 높고 교사의 교육 경험이 적을수록 아동-교사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므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thal and Vandell, 1996).

빈곤아동에 대한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위한 개입에 관한 국내 연구들 역시 외국 연구들에 비해 빈약한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연구들에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결연사업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 밖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주로 빈곤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적합한 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집단 경험을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사교성, 책임감, 개방성 등)이 향상되었으며(권효정, 2001), 구조화된 성장 집단경험을 빈곤·결손가정의 청소년에게 적용한 결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 긍정적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조은희, 1990). 또한, 현실요법 이론에 기초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빈곤청소년에게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에서 내적 통제감과 대인관계기술이 향상되었고,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정은희, 2002).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자기 성장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분석한 연구(이현정, 2001)에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나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이 향상되었으나 준법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가정 청소년에게 집단사회사업을 실시한 결과, 미래계획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태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강영미, 2000)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보다는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빈곤아동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빈곤은 아동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호요인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매우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정도가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보건복지부 결연사업의 대상아동이다. 결연사업이란 1976년 정부의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81년 민간주도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빈곤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주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아동,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및 재가노인세대 등 기타 빈곤세대이며(보건복지부, 2004), 정부가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빈곤집단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12월 현재 결연사업 총 대상자수는 236,274명이며 이중 양육시설, 재가보호노인과 재가보호장애인을 제외하면, 소년소녀가정 6,842명, 가정위탁보호 5,415명, 저소득모자가정 61,698명, 기타 빈곤가정 86,940명 등 총 160,895명이었다. 이 결연대상 아동 중 자기보고식 조사가 가능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결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산하 전국 16개 시·도 지부와 19개 사회복지관에 상기 4개 대상별 인구비율과 담당 사례수에 따라 표본사례수를 할당하였고, 각 기관에서는 할당 사례수에 맞게 빈곤가정 아동을 추출하였다. 전체 결연대상아동 비율에 따라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68사례, 가장 적게 할당된 기관은 25사례가 할당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개의 기관에 128사례가 배정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산 3개 기관에 95사례 순이었다. 기관별로 아동비율에 따라 사례수가 먼저 할당된 이후에 각 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대상군의 비율에 따라 사례를 배정하도록 하였는데, 35개 기관 전체적으로는 소년소녀가정세대에 175사례, 가정위탁에 176사례, 저소득모자가정에 271사례, 기타 빈곤가정에 378사례가 조사대상아동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분하였고, 그 중 회수된 설문지 904개가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빈곤아동 904명을 보다 상세한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소년소녀가정 아동 74명(8.2%), 조부모 대리양육가정 아동 205명(22.7%), 친인척위탁양육가정 아동 74명(8.2%), 일반위탁가정 아동 16명(1.8%), 기타 일반빈곤가정 아동 535명(59.1%) 등이었다.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성별 분포는 남자 아동이 전체의 43.5%인 392명, 여자 아동이 56.3%인 509명이었다.

사전조사를 위해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에 2부씩 2003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표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조사표가 완성되었다.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자 지침이 작성되었고, 한국복지재단 본부의 선임사회복지사와 연구원에 의해 조사를 담당할 전국 35개 기관의 담당 직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전교육이 유선과 서면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그 교육에서 아동자신과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아동이 설문을 작성할 때,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조사는 2003년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조사자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담당 직원이나 사회복지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가정방문이나 조사대상자가 기관에 내방하여 직접 대면하고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표의 작성은 조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조사자가 도와주도록 하였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허남순 외(2005)를 참조하면 파악할 수 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로 ①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②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③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④ 견학·방문 등 당일 집단활동, ⑤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⑥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서의 공부방 등 6가지를 질문하였다. 6개의 사회복지서비스 중 몇 개를 이용했는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단순히 6가지 서비스의 이용여부가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본인이 이용한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각 이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랬음,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에서 적어도 “대체로 만족” 이상인 경우에만 의미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간주하였다.

(2) 심리사회적 적응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판 자기행동평가척도는 Achenbach(1991)가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

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아동행동조사표(Child Behavior Checklist)를 한국적 특성에 맞게 수정한 척도로서, 국내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다. Achenbach(1991)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문제행동 증후군'으로 이해하고, 9개의 하위척도(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정체감 문제)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사회적 위축과 신체 증상, 우울·불안을 포함하는 심리정서문제와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하는 행동문제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정서문제 중 사회적 위축(7문항)과 우울·불안(14문항) 하위척도를, 행동문제 중에서 비행(11문항), 공격성(19문항)의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있거나 정도가 심하다(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각 척도는 해당 문제 문항들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들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상의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사회적 위축이 .78, 우울·불안이 .88, 비행이 .71, 공격성이 .87이었다.

(3) 자아존중감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내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 척도는 아동들에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합산 점수는 1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4) 역할모델유무

빈곤아동에게 주위에 닮고 싶은 사람(role model)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닮고 싶은 사람이 친사회적이나 반사회적이나에 따라 그 적응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아동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 아동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익중, 2003).

(5)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혹은 부모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성인)가 자녀들을 어느 정도 지도감독하는 지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하여 9문항을 질문하였다. 행선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지, TV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지, 인터넷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컴퓨터나 비디오게임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영화나 비디오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지, 마음대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마음대로 친구와 외박을 할 수 있는지, 원하는 만큼 밤늦게 들어올 수 있는지, 부모의 반대와 상관 없이 친구를 사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5점 척도에 대답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동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철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의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6)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와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감정과 생각을 부모와 공유하는지, 부모와 가깝게 느끼는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운지 등을 질문하였다. 부모가 없어서 '해당 없음'에 응답한 아동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 대하여, 부와 모에 대해 각각 4문항씩 8문항을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7) 학교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지, 학교에 다니기 싫은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지, 학생을 이해하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는지 등의 7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의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8) 비행또래집단

비행또래집단의 존재여부는 담배·술의 사용, 가스·본드의 사용, 절도, 폭행, 무단결석, 학교중퇴, 가출의 7가지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76이었다.

(9) 유해지역사회환경

빈곤아동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유흥가나 유희가가 많은지 여부, 강도·절도·범죄·불량배가 많은지 여부, 빈집(폐가)이 많은지 여부 등에 대한 3개의 문항을 5점 척도에 따라 질문하였다. 이는 지역사회환경의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빈곤아동에 의해 인지된 지역사회상황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환경이 유해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며, 이의 신뢰도 계수는 .55이었다.

(10) 인구통계학적 변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가족유형 등을 포함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에게 '1'의 값을 여자에게는 '0'의 값을 주었다. 가족유형의 경우, 양친부모 가족을 비교를 위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한부모 가족과 기타 가족 두 개의 가변수를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다중회귀분석이었다. 다변량 분산분석은 집단 간의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할 때 이용된다는 점에서는 분산분석(ANOVA)과 동일하지만 분산분석의 경우는 종속변수가 1개인 반면 다변량 분산분석은 종속변수가 다수일 때 이용된다는 점과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다변량 분산분석은 종속변수군 전체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종속변수들 중 어느 변수에서 기인하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먼저 4개의 종속변수(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척도: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를 대상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의미있는 종속변수를 도출한 다음 유의미한 종속변수만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1.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상담, 자원봉사자 방문, 수련활동, 당일 집단활동, 집단프로그램, 공부방 등의 6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빈곤아동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을 보면 조사대상자 중 이런 서비스를 1개 이상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75.3%였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24.7%였다. 2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1.8%를 차지하였다. 3개를 이용하는 아동도 15.4%나 되었으며 11.1%의 아동은 4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론적 모형을 사상한 채 단순하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들 간에는 질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클 것이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만이 효과를 가져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적 연구에서 빈곤아동들이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쉽게 반영하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에서 클라이언트 만족도를 주요지표 중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정무성, 2000; Royse et al., 2001),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 분석에서 만족도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개수를 이용하였다.

〈표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개수

서비스 개수	서비스 이용 빈도(%)	만족한 서비스 이용 빈도(%)
0	220 (24.7)	415 (46.7)
1	194 (21.8)	195 (21.9)
2	241 (27.0)	150 (16.9)
3	137 (15.4)	79 (8.9)
4	68 (7.6)	35 (3.9)
5	21 (2.4)	9 (1.0)
6	10 (1.1)	6 (0.7)
합계	891 (100.0)	889 (100.0)
평균 (표준편차)	1.7 (1.4)	1.1 (1.3)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만족도를 반영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개수의 감소가 있어 만족한 서비스를 한 개도 이용하지 못한 아동이 46.7%나 되었다. 이는 전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24.7%를 포함한 숫자로 약 22% 정도는 몇 개의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만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만족한 서비스를 1개 이용한 아동이 21.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개수가 증가할수록 빈도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앞에서 3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였는데 만족도를 반영한 결과 3개 이상의 만족한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4.5%에 불과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직선적(linear) 관계를 가정할 만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선적 관계라기보다 특정 역치(threshold)를 넘어서는 경우 영향의 크기가 둔화되는 고원효과(plateau effect)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개수가 어떤 특정 역치를 넘으면 n개를 받든 n+1개를 받든 심리사회적 적응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큰 차이가 없이 정체상태를 보일 것이다. 산포도(scatter plot)를 통해서 쉽게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속변수를 사용하기보다 범주형(categorical) 또는 비연속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Chung et al., 2002). 연속변수를 가지고 변수의 특성을 보다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집단을 구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해당집단의 상위 25%나 하위 25%를 구분하거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평균값에 표준편차 1단위를 더하거나 빼서 구분하는 것이다(이상균·박현선, 2000; Luthar, 1991; Stouthamer-Loeber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비스이용이 전체집단의 상위 25%이거나 평균값에 표준편차 1단위를 더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위 25%도 2개 이상인 집단이었고 평균값에 표준편차 1단위를 더한 것(평균 1.1+ 표준편차 1.3=2.4)도 2개 이상이었다. 따라서 빈곤아동을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한 집단과 1개 이하로 이용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앞으로 본 장에서는 이 두 집단을 비교할 것이다. 만족한 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한 아동은 빈곤아동 전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31.4%였으며 나머지 68.6%는 1개 이하의 만족스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1개 이하의 만족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은 남자가 44.9%, 여자가 55.1%로 나타났고, 2개 이상의 만족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경우 남자가 39.9%, 여자가 60.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카이제곱(χ^2) 검정 결과 양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양친부모와 함께 사느냐, 한부모와 사느냐, 기타 유형의 가족이냐에 따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만족한 서비스를 이용한 빈곤아동 집단의 경우 기타 가족이 46.7%로 가장 많았다. 1개 이하의 만족 서비스 이용집단의 경우는 근소한 차이이지만 한부모 가족이 41.8%로 가장 많았다.

〈표 2〉 성별, 가족형태별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 차이

변수	항목	1개 이하의 만족 서비스 이용 (%)	2개 이상의 만족 서비스 이용 (%)	χ^2 (df)
성별	남자	273(44.9)	111(39.9)	1.9 (1)
	여자	335(55.1)	167(60.1)	
가족 유형	양친부모 가족	108(18.2)	40(14.7)	3.8 (2)
	한부모 가족	249(41.8)	105(38.6)	
	기타	238(40.0)	127(46.7)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

심리사회적 적응의 4개 하위 척도들이 빈곤아동의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복수인 경우 분산분석(ANOVA)을 여러 번 하는 대신 다변량 분산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인 상황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할 때 각 종속변수에 대해서 분산분석을 여러 번 이용한다면 1종 오류의 확률이 커진다. 반면 다변량 분산분석은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을 하게 되므로 상관을 지닌 종속변수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1종 오류를 제어할 수 있다(Tabachnick and Fidell, 2001). 둘째, 각 종속변수를 별도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분산분석을 하게 되면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단 차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입수 가능한 총체적 정보보다 적은 부분을 이용하게 된다. 종속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다변량 분산분석을 사용하면 분산분석에서 밝힐 수 없는 결합된 차이(combined differences)를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간 차이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종속변수를 찾아낼 수도 있다(Stevens, 2002).

본 연구처럼 심리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차이를 먼저 검증한 후 개별적인 효과를 평가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변량 분산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24), 사회적 위축과 비행(.32)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 하위 척도간의 상관계수들이 모두(.50)가 넘는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할 경우 1종 오류가 증가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하위척도 전체를 대상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표 3>을 살펴보면 공격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하위척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6개 중 만족한 서비스를 1개 이하 이용한 집단보다 2개 이상 이용한 집단이 그 문제수준이 낮았다.

<표 3> 심리사회적 적응 하위척도의 기술통계

심리사회적 적응	항목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사회적 위축	1집단	3.34	2.70	606
	2집단	3.01	2.60	278
우울·불안	1집단	4.33	4.74	606
	2집단	3.97	3.97	278
비행	1집단	1.52	1.92	606
	2집단	1.12	1.40	278
공격성	1집단	3.86	4.49	606
	2집단	4.40	4.60	278

1집단: 사회복지서비스 6개 중 만족한 서비스를 1개 이하 이용한 집단
 2집단: 사회복지서비스 6개 중 만족한 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한 집단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표 4>에서 윌크스 람다(Wilks' Lambda)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이는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2개 이상 이용여부에 따라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의 조합된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4개 종속변수의 조합된 평균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모든 개별 종속변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다변량 통계치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종속변수의 선형조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나면 그 차이가 주로 어떤 종속변수에 의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변량 검증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위척도 중 비행만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형조합의 차이에 가장 기여하는 종속변수는 F값이 가장 큰 비행이고 그 다음이 사회적 위축이었다. 우울·불안은 선형조합의 차이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에타제곱(ETA²)인데 상대적인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도 비행이었다. 따라서 다음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비행을 주요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 심리사회적 적응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 Lambda	df	단일변량 F 값	df	ETA ²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2개 이상 이용여부	사회적 위축	.97***	(4, 879)	2.84	(1, 882)	.003
	우울·불안			1.21	(1, 882)	.001
	비행			9.67**	(1, 882)	.011
	공격성			2.73	(1, 882)	.003

** p<.01, *** p<.001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척도 중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던 비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표 5〉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척도로서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	1.55 (.08)	20.61***	1.87 (.53)	3.52***	5.92 (.73)	8.07***
만족 복지서비스 이용	-0.44 (.13)	-3.27***	-0.41 (.14)	-3.06**	-0.22 (.13)	-1.76*
성별			0.16 (.13)	1.25	0.11 (.12)	0.97
연령			0.01 (.04)	0.29	0.00 (.04)	0.24
한부모			-0.15 (.18)	-0.86	-0.18 (.16)	-1.13
기타가족			-0.44 (.18)	-2.48*	-0.37 (.17)	-2.24*
자이존중감					-0.07 (.01)	-6.32***
역할모델					0.05 (.12)	0.41
부모의 지도감독					-0.03 (.01)	-3.22***
부모애착					-0.00 (.01)	-0.37
학교만족도					-0.03 (.01)	-2.58**
비행또래집단					0.21 (.04)	5.16***
유해지역사회환경					0.08 (.03)	3.17**
R ²	.01		.02		.19	
F 값	10.73*** (df=1)		3.93** (df=5)		14.78*** (df=12)	
R ² Change	-		.01 ⁺		.16***	

+ p<.10, * p<.05, ** p<.01, *** p<.001

〈표 5〉의 모형 I은 비행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사용되었던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은 비행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하는 집단이 1개 이하로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비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서는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가족유형을 통제하여도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한 집단이 1개 이하로 이용한 집단에 비해 비행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모형 III은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변수들을 투입하여 통제하여도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이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이존중감, 역할모델의 존재 여부, 가족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와의 애착, 학교관련 요인으로 학교만족도, 비행또래집단, 지역사회관련 요인으로 유해지역사회환경이 사용되었다. 비행의 예측요인으로 널리 알려진 변수들을 투입하여도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줄고 유의수준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한 집단이 1개 이하로 이용한 집단에 비해 비행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수준의 저하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한 모형을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변수를 가지고 수행한 결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낮은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수준도 낮았다. 또한 모형 III단계에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비행과의 관계가 직선적 관계라기보다 특정 역치를 넘어서는 경우 영향의 크기가 둔화되는 고원효과(plateau effect)를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본 논문에 표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교신저자에게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척도로서 비행은 거짓말, 욕설, 가출, 방화, 무단결석, 음주, 약물사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는 대부분의 비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비행행동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러 비행행동, 즉 부정행위(키닝), 징계, 담배, 본드, 가스, 음란비디오 시청 등을 “비행 일반” 척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이미 보고한 결과와 전반적인 경향이 매우 유사하였고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더 클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비행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	2.24 (.11)	20.61***	0.90 (.77)	1.17	5.25 (.91)	5.79***
만족 복지서비스 이용	-0.71 (.19)	-3.66***	-0.63 (.20)	-3.25***	-0.37 (.20)	-2.05*
성별			0.30 (.18)	1.62	0.22 (.17)	1.34
연령			0.11 (.06)	1.82 ⁺	0.02 (.05)	0.38
한부모			-0.04 (.25)	-0.16	-0.13 (.23)	-0.55
기타가족			-0.33 (.26)	-1.26	-0.22 (.23)	-0.95
자이존중감					-0.10 (.02)	-5.84***
역할모델					0.09 (.17)	0.53
부모의 지도감독					-0.04 (.01)	-3.21***
부모애착					-0.01 (.01)	-0.85
학교만족도					-0.05 (.02)	-2.77**
비행또래집단					0.43 (.06)	7.39***
유해지역사회환경					0.14 (.04)	3.79***
R ²	.02		.03		.22	
F 값	13.42*** (df=1)		4.26*** (df=5)		18.54*** (df=12)	
R ² Change	-		.01 ⁺		.20***	

+ p<.10, * p<.05, ** p<.01, *** p<.001

각 변수들을 상호 통제된 상황에서도 조사대상 빈곤아동의 비행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인데 먼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비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철저하고 아동의 학교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수준이 감소한 반면 주위에 비행또래친구들이 많고 지역사회환경이 유해하면 유해할수록 비행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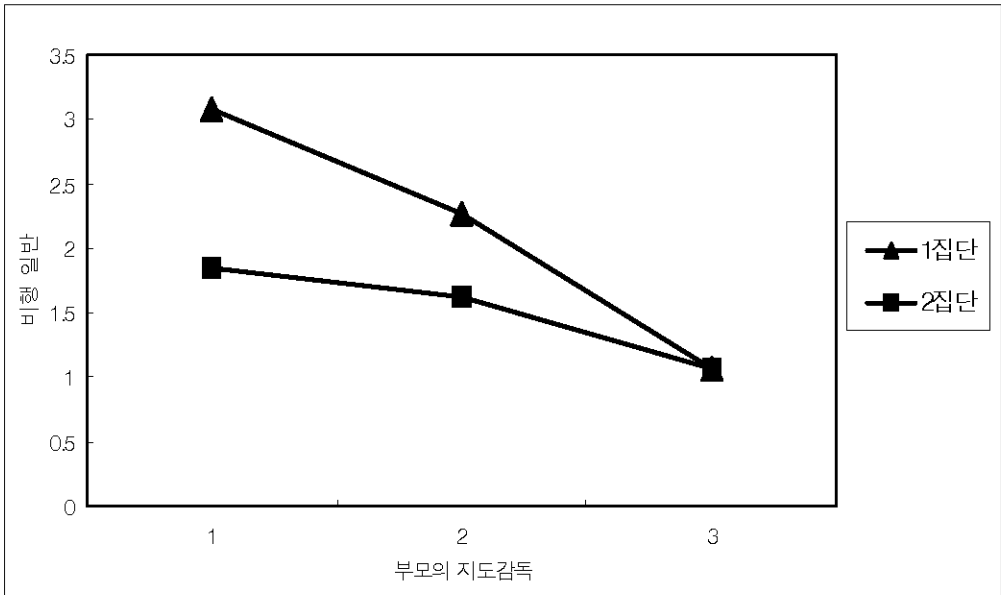
	종속변수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척도로서의 비행		비행 일반	
	모형 IV		모형 IV	
	회귀계수(표준오차)	t 값	회귀계수(표준오차)	t 값
상호작용항	0.03 (.03)	1.30	0.08 (.04)	2.03*
R ²	.19		.23	
F 값	13.61*** (df=13)		17.74*** (df=13)	
R ² Change	.00		.01*	

상호작용항 = 부모의 지도감독 × 만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각 모형은 모형 III에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다.

* p<.05, *** p<.001

또한 만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의 영향이 다른 독립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 IV에서는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자아존중감, 부모의 지도감독, 학교만족도, 비행또래집단, 유해지역사회환경 등 모형 II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모두 상호작용항으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척도인 비행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항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비행 일반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부모의 지도감독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행 일반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IV에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했을 경우 모형 III에 비해 유의미한 정도로 R²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지도감독의 평균값 ± 1단위 표준편차라는 기준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을 상, 중, 하 3개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1개 이하 이용한 집단과 만족한 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한 집단 사이에서 보여주는 비행 수준의 변화추이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도감독 1: 하위 25%, 2: 중간 50%, 3: 상위 25%
 1집단: 사회복지서비스 6개 중 만족한 서비스를 1개 이하 이용한 집단
 2집단: 사회복지서비스 6개 중 만족한 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한 집단

〈그림 1〉 부모의 지도감독 정도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 일반에 미치는 영향

〈그림 1〉에서처럼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1개 이하 이용한 집단이나 2개 이상 이용한 집단이나 부모의 지도감독이 증가할수록 비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경우 양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지도감독을 통해 비행의 많은 부분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가 비행 수준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경우는 양 집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1개 이하를 이용한 집단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한 집단이 비행 수준이 훨씬 낮았다. 이는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경우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제공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억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을 단순하게 이용여부만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간접

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만족도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중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하위척도군 전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하위척도군 중에서 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전체적 차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종속변수는 비행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여전히 만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의 낮은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부모의 지도감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비행 수준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비행 감소 또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런 효과를 가져 오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무조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족된 서비스를 적어도 2개 이상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연구결과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비행과의 관계는 직선적 관계라기보다 특정 역치를 넘어서는 경우 서비스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한계효과의 크기가 둔화되는 고원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역치점이 본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1개 이하를 이용하느냐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의 과도한 중복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과 양질의 서비스가 누락 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만족스런 서비스 이용이 1개 이하인 경우가 전체 빈곤아동의 68.6%임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중에 서비스 누락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결과는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모든 빈곤아동들에게 서비스의 질에 만족할 수 있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아동 중 특히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비행 수준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부모의 지도감독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견학·방문 등 당일 집단활동,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공부방(방과후 프로그램) 등 6가지이다. 이 서비스들은 일대일 서비스이거나 소집단 활동이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가 아동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 다방면에서 관심과 지도를 제공하기 용이하다. 이런 가능성들을 종합해 볼 때,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캠프나 집단활동을 통한 문화체험이나 견학, 자원봉사자들의 가사도움과 같은 도구적 지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성인 서비스제공자의 관심과 생활지도 및 감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 못한 빈곤아동들을 위해 성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비행예방에 부모의 지도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족의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빈곤가족의 부모들은 대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므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아동을 제대로 지도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빈곤한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집단들 중의 하나이다. 빈곤으로 인한 부모역할의 제한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에게는 지도감독을 줄 수 있는 부나 모 중 한 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투입하는 전체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저하된다. 또한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접촉하는 시간도 감소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 지지, 지도감독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Amoto and Keith, 1991; Amoto, 1993). 특히 부모 없이 조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이나 아동들끼리만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경우는 더더욱 성인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족하기 쉬운 빈곤가족이나 한부모가족 자녀,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 반대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적절한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허남순 외, 2005).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빈곤아동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사례발굴(outreach)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고 비행이나 기타 부적응의 위험이 높지만 주변의 관심 부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아동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이런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행을 중심으로 빈곤아동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비행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비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변수들, 즉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에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사용된 자아존중감이나 학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며 아동의 비행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비행또래집단과의 격리효과도 있을지 모른다. 그 외에도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빈곤아동의 학업성적, 또래관계기술, 사회성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빈곤아동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적응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개별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의 적응에 더 효과적인지를 밝히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라는 독립변수를 조작화하는데 있어 만족도라는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서비스 이용개수라는 양적 측정을 중심으로 하였다. 서비스 이용은 사실상 전체 서비스 이용개수뿐만 아니라 개별 서비스의 이용 횟수, 서비스의 강도 또는 빈도, 내용, 서비스 제공자와 아동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도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이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되어야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 전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라는 변수를 보

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그 영향을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6가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의 비율은 24.7%였지만 만족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못했다는 아동의 비율은 46.7%로 증가하였다. 상당히 많은 빈곤아동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아동들에게 서비스의 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은 흥미로우면서도 사회복지서비스 개입의 효과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결국 빈곤아동에 대한 서비스 정책방향은 어떻게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느냐의 논의도 함께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빈곤아동 연구방법론상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아동을 표집할 때 확률표집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사의 편의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복지사와 같은 빈곤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유의표집 한다거나 영구임대주택단지나 철거지역을 중심으로 임의표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확률 표집을 사용할 때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다양한 수준에서 이용한 빈곤아동이 골고루 표집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실상과 다르게 빈곤아동의 적응이 일반아동의 그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는 미지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또한 빈곤아동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은 상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빈곤아동 발달과 적응을 연구할 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개수를 통제변수라든가 포함시켜야 중요한 설명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미, 2000. “빈곤가정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성 연구: 자아존중감, 미래계획, 학교생활태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구인희, 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29.
- 권효정, 2001. “저소득층 아동의 집단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대일, 2004. “빈곤의 정의와 규모”. 유경준·심상달 편.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KDI 연구보고서 2004-01.
- 류연규·최현수, 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한국아동복지학』 16: 135-165.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 백정재, 1996.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보건복지부, 2004. 『아동복지사업안내』.

- 부스리기사랑나눔회. 2003. 『빈곤가정 아동의 위기개입 사례연구』.
- 오승환. 2000a. “소년소녀가장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9: 99-126.
- 오승환. 2000b. “소년소녀가장의 사회심리적 적응 결정 요인”. 『사회복지연구』 16: 117-141.
- 이상균·박현선. 2000. “소년소녀가장의 성인역 아동(adult children)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6: 143-164.
- 이순형·신양재·김영주. 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2(1): 114-127.
- 이영·신은주·나중혜. 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3(3): 165-177.
- 이원숙·김성이. 1993. “결혼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 비교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62(2): 65-115.
- 이현정. 2001.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무성 역. 2000. 『프로그램 성과평가』. Martin, L. L. and Kettner, P. M. 1997.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human service programs*. 서울: 나눔의 집.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은희. 2002.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익중. 2003. “빈곤아동의 문화생활과 박탈”. 『제19회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조운희. 1990. “집단경험이 빈곤·결혼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동광』 87: 40-68.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mato, P. R. and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Feb): 23-38.
- Chung, I.-J. , Hawkins, J. D., Gilchrist, L. D., Hill, K. G. and Nagin, D. S. 2002. "Identifying and predicting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76: 663-685.
- Chung, I.-J. 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antisocial behavior: Focusing on psychosocial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4: 355-380.
- Cicchetti, D. and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 221-241.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Lorenz, F., Simons, R. and Whitbeck, L.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Elder, G., Van Nguyen, T. and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Gomby, D. S., Lerner, M. B., Stevenson, C. S., Lewit, E. M., and Behrman, R. E. 1995. "Long-term outcomes of early childhood program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uture of Children* 5(3): 6-24.
- Jessor, R. 1992.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pp. 19-34. in *Adolescents at Risk: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edited by Rogers, D. E. and Ginzberg, E. Boulder, CO: Westview Press.
- Lempers, J. D., Clark-Lempers, D. and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Lerner, R. M. 1995. *America's youth in crisis: Challenges and options for programs and polic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oeber, R. 1990.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41.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McLeod, J. D. and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 McLoyd, V. C. and Wilson, L. 1992.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pp. 105-135. in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edited by Huston, A. C.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Peterson, T. K. and Fox, B. 2004. "After-school program experiences: A time and tool to reduce dropouts." pp. 177-184. in *Helping Students Graduate: A Strategic Approach to Dropout Prevention*, edited by Smink, J. and Schargel, F. P. Larchmont, NY: Eye on Education.
- Posner, J. K. and Vandell, D. L. 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Posner, J. K. and Vandell, D. L. 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868-87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thal, R. and Vandell, D. L. 1996. "Quality of care in school-aged child-care programs: Regulatable features, observed experiences, child perspectives and parent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67: 2434-2445.

- Royse, D., Thyer, B. A., Padgett, D. K., and Logan, T. K. 2001. *Program Evaluation* (3rd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Smokowski, P. R. 1998.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resilience in disadvantaged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72(3): 337-364.
- Stevens, J. 200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4th ed.). Mahwah, NJ: Erlbaum.
- Stouthamer-Loeber, M., Loeber, R., Wei, E., Farrington, D. P., and Wikstrom, P. O. 2002. "Risk and promotive effects in the explanation of persistent serious delinquency in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111-123.
- Tabachnick, B. G. and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The Effect of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on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Poor Children

Chung, Ick-Joong
(Duksung Women's University)*

Kim, Hye-La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 Soon-Hae
(Seoul Women's University)

Park, Eun-Mie
(Seoul Jangsin University)

Huh, Nam-Soon
(Hallym University)

Oh, Jeong-S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understand how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the satisfaction from the use affect poor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Especially, it focused to find out whether the use of satisfied services has an independent effect on poor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when other relevant variables are controlled.

Participants are 904 poor children from 16 nationwide cities/provinces who receive financial sponsorship from Korea Welfare Found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mong them, 8.2% is from youth-headed homes, 22.7% is from grandparent-care homes, 8.2% is from relative foster homes, 1.8% is from non-relative foster homes and 59.1% is from other poor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MANOVA, poor children who received 2 or more satisfied social welfare servic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who received 1 or no service in their combined psychosocial adjustment subcategories. Delinquency among the subcategories is the most influencing variable in combined differences.

2) Controlling sex, age, family structure and other variables that ar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delinquency in previous research, the use of satisfied services is still the significant variable in decreasing delinquency among poor children.

3)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use of satisfied services and parental supervision

* Corresponding Author, ichung@duksung.ac.k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Under the low level of parental supervision, the use of satisfied servic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rease of delinquency. However, under the high level of parental supervision, the use of satisfied services has little effects.

From these results, we found out that the use of satisfied social welfare services is a very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o prevent or decrease delinquency among poor children. Also we found out that it is critically important for poor children who receive the low level of parental supervision to have good-quality social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prevent delinquency.

Key words: Poverty, Children, Social Welfare Services, Psychosocial Adjustment, Parental Supervision, Delinquency

[접수일 2005. 3. 2. 게재확정일 2005. 4. 18.]